

기획
특집

Special Edition

조선 후기
天主教人과 記錄

황사영과 『백서(帛書)』

여진천_배론성지 주임신부

김대건 신부와 그의 기록

서종태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헌종~고종대 천주교 박해와 순교 기록

방상근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

1 Special Edition

황사영과 「백서(帛書)」

글. 여진천 (배론성지 주임신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14년 8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리는 ‘서소문 · 동소문별곡’전에 한국교회의 역사 관련 유물 300여 점이 전시되는데, 교황청 민속박물관에 있는 황사영(黃嗣永)의 「백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 2001년 신유박해 200주년 기념으로 절두산 순교박물관에서 ‘신앙의 향기 200년’전이 열릴 때 「백서」 원본이 전시된 적이 있었다.

1. 황사영의 생애

「백서」의 저자인 황사영은 1775년 서울 아현동에서 부친 황석범과 모친 이운혜 사이에서 유복자로 태어났다. 남인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자 성리학을 공부하여 1790년 9월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는데, 이때 정조는 선물을 주면서 “20세가 되거든 내게 봉사하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당시는 정조치하 준론 탕평의 정책 아래에서 남인들의 정계 진출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는데, 출세가 보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무렵 정약현(1751~1821)의 딸 정명련(1773~1838)과 결혼하였고, 천주교에 입교하였으며, 세례명은 알렉시오(Alexius)였다.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그는 과거시험을 포기하였고, 열성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진하여 교회서적을 만들어 보급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천주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는 신분귀천을 막론하고 신분이 낮은 이들과도 만나 교류하였고,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자신의 집을 주문모 신부와 신자들이 머물도록 제공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양반 신자 중에서 가장 높은 이 가운데 하나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1801년 1월 10일 신유박해가 일어났고, 2월 10일 체포령이 내려졌다. 이에 그는 정약종의 집 행랑에 살던 김한빈과 상의한 후 상복을 입고 성묘를 가는 차림으로 충북 제천 봉양읍 구학리 배론의 김귀동의 집으로 피신하여 옹기술을 가장한 토굴 속에서 지냈다. 3월 말 함께 지내던 김한빈을 서울로 보내 교회소



01. 황사영백서(로마교황청민속박물관 소장, 사진제공 서울역사박물관) : 황사영이 신유박해의 전말과 그 대응책을 흰 비단에 적어 중국의 구베아 주교에게 보내고자 했던 밀서이다.

식을 알아오게 하였고, 8월 말 춘천에 살던 황심이 찾아와 교회소식을 알려주었다. 이들을 통해서 박해로 주문모 신부와 많은 신자들의 죽음을 전해 들었다. 이에 교회 지도자 중의 하나였던 그는 박해로 인해 죽어간 신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재건과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방안을 「백서」에 적어 북경교구장 구베아 주교에게 보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9월 15일 체포된 황심의 고발로 9월 29일 배론에서 체포되면서 「백서」 또한 압수되었다. 「백서」는 의금부 창고 속에 보관되어 오다가 1894년 옛 문서를 정리할 때 발견되어 교회에 넘어오게 되었고, 교구장 뮈텔 주교는 1925년 7월 5일 79위 시복식 기념으로 교황에게 선물로 봉정하여, 현재 교황청 민속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1801년 10월 9일부터 의금부에서 신문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천주교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성교(聖敎)이자 서구인과 중국인이 다 같이 믿는 세계의 보편적 진리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무군무부(無君無父)의 가르침이 아니라 정도(正道)이며……. 백 번을 생각하여도 세상을 구하는 양약(良藥)이기에 성심껏 믿어왔다.”고 하였고, “충효와 자애에 가장 힘쓰고 있으므로, 온 나라가 봉행하면 실로 왕국에 무한한 복이 올 것”이라고 하였다. 「백서」의 기본 입장은 “나라와 백성에 해가 없는데도 조정에서 금하기에 힘을 다해 금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었다.”고 하였다. 이런 그를 두고 정약용은 그가 죽음에 이르러도 변치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결국 11월 5일 서소문 밖에서 대역부도의 죄로 능지처참되었고, 6일 모친 이운혜는 거제도, 부인 정명련은 제주도로, 아들 황경현은 두 살이어서 교살형을 면하고 추자도로 귀양 보냈다. 대역죄인으로 죽음을 당했던 황사영은 후손들의 노력으로 1909년경에 신원(伸冤)되었다.

대왕대비는 12월 22일 반교문(頒敎文)을 반포함으로써 신유박해를 마무리하였다. 이 반교문은 박해를 이끌어 갔던 조정의 입장을 종합하여 제시한 것인데, 천주교 신앙의 망령됨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며 비판하였고, 신앙적 열정 때문에 형벌로도 다스리기 어려우며 제사를 거부하여 전통규범에 정면으로

상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천주교인들의 성분을 사회적 소외층이며 나라를 원망하는 무리로 파악하고, 유교적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고, 천주교인 집단이 겉으로는 종교로 꾸미고 있으나 속으로는 반역집단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정조의 교화우선정책 대신에 형벌에 의한 강경한 금압 정책을 선택하였음을 밝혔다.

2. 「백서」의 내용과 사료적 가치

백서(帛書)란 황사영이 중국으로 가는 교회 밀사의 옷 속에 넣어 보내려고 비단에 쓴 서한을 말한다. 「백서」의 크기는 62cm×39.1cm, 40cm이고, 글자 수는 122행에 13,384자이다. 수신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북경교구장으로 프란치스코 회원인 구베아 주교였다. 발신자는 자신의 세례명인 알렉시오(亞肋叔)로 하지 않고, 황심의 세례명인 토마스(多默)로 한 것은 구베아 주교와 선교사들이 북경을 몇 차례 다녀온 황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서」의 전달 예상자는 옥천회(요한)이었다.

「백서」의 내용 구성은 인사말(1~5행), 신유박해의 진행과정(6~32행), 순교자 열전(32~90행), 교회의 재건과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방안(90~118행), 관면요청과 맺음말(119~122행)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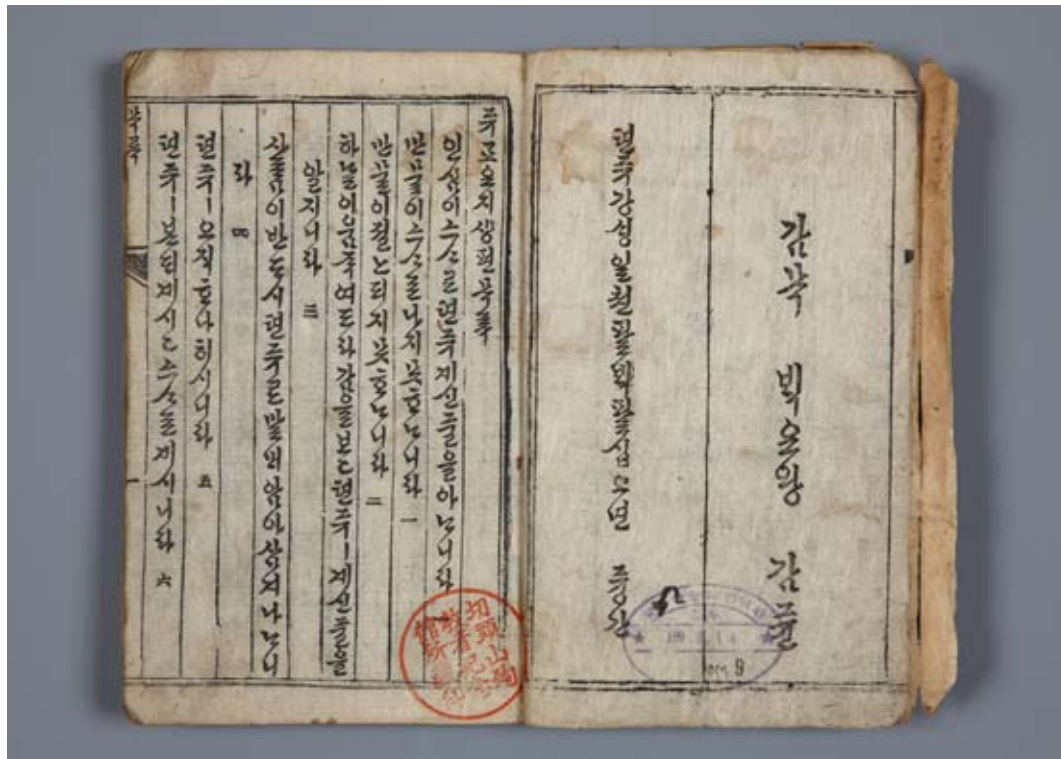
먼저 인사말(1~5행)에는 「백서」의 작성동기가 담겨있다. 즉 박해를 직접 경험한 그가 이처럼 절박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 구베아 주교에게 빨리 조선 교회를 구해달라고 간청한 것이다.

박해의 전개과정(6~32행)에서는 1795년부터 1801년 2월 말까지 박해의 진행과정을 정치사적·교회사적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조선에 입국하여 사목활동을 한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1795년에 체포하려다가 놓친 사건과 1799년 청주에서 일어난 박해, 최필공(토마스)에 대한 정조의 회유지시와 형조에서 신앙고

백, 이중배(마르티노)의 입교과정과 1800년 부활절 축하행사, 옥중에서의 의술활동과 신앙생활, 그리고 남인대가의 자손으로 권철신(암브로시오) 가족의 신앙생활과 양근 군수의 체포령, 각 지방에서 일어난 박해는 정조가 비밀리에 주문모 신부를 체포하여 처리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냉담자이며 배교자인 김여삼이 사돈인 이안정의 재산을 노려 주문모 신부를 밀고하였다고 했다. 이처럼 주 신부의 입국부터 정조 말까지 일어난 박해의 이유와 진행과정을 서술하였는데, 여기에 정치적 배경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노론 벽파와 정조의 탕평책을 보좌한 남인 시파 사이의 정치적 다툼과 정조에 대한 정순왕후 김 씨의 원한이 결합되어 천주교 탄압만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정적 제거 과정에서 박해는 더욱 격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남인들도 친서계(親西系: 이가환·정약용·이승훈·홍낙민)와 공서계(政西系: 홍의호·목만중)로 나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론도 정조를 따르는 시파와 정조의 뜻에 항거하는 벽파의 분립도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1800년 조선교회는 종교적 교양 향상과 전교활동을 위하여 명도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여회장 강원숙(골롬바) 등의 전교활동 등으로 교회 안의 대세가 2/3가 되는 부녀자 중심이 되었다고 하였다. 1800년 12월 최필공과 1801년 1월 9일 최창현의 체포가 있었고, 1월 10일 대왕대비는 천주교에 대한 철저한 탄압의지를 담은 박해령을 내려 천주교인 색출을 위하여 오가작통법을 실시할 것과 신자들에게 반역죄를 적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정조의 교화우선정책이 처벌우선정책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였다. 1월 19일 명도회장 정약중(아우구스티노)의 책고리짜이 발각된 사건은 불에다 기름을 얹은 사건으로 박해는 확대되어 포도청과 형조 옥에 체포된 신자들이 가득 했다고 하였다. 2월 26일 서소문밖 형장에서 정약중·최창현·최필공·홍교만·홍낙민·이승훈 등이, 5월에는 여주와 양근에서 신자들이 순교하였다고 하였다.

순교자 열전(32~90행)에서는 총회장 최창현(요한)의 20년을 하루같이 지낸 신앙생활과 덕망이 높은 신자들이 신뢰하였던 삶과 순교, 명도회장 정약중(아우구스티노)의 개종과 모범적인 신앙생활, 「주교요지」의 저술과 주 신부의 인준, 그리고 영웅적인 순교모습을 전하였다. 최필공(토마스)의 형장에서의 순교 모습, 권철신의 외사촌인 홍교만(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삶과 포천에서 복음을 전파한 신앙생활, 사간언 정언을 역임한 홍낙민(바오로)의 입교와 1791년 배교, 그 후 내적으로 신앙생활과 순교, 이승훈(베드로)이 이벽(세례자 요한)의 부탁을 받고 북경 북당에서 받은 세례, 평택 현감시 체포되어 교회를 비판하고 1795년 회개하러던 중에 박해로 주춤했던 사실과 죽음, 천문학과 기하학에 정통한 이가환이 「직방외기」를 읽고 나서 이벽과 교리 논쟁, 「천학초합」과 「성년광익」을 읽고 나서 “이것이 진리요 정도이다.”라고 했고, 1795년 충주목사로 좌천되어 신자들에게 주회형을 처음 적용했던 일, 신유박해 외중에 죽음은 신앙을 위한 순교라기보다는 정치적 죽음이었다고 했다. 감옥에서 죽은 권철신의 죽음이 순교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야겠다고 했다. 약방을 운영했던 최필제(베드로)의 진실하고 충직한 삶, 모범적인 가정생활과 순교를 기록하였다. 노론 김상헌의 봉사손인 김진순(요사팻)의 입교와 신앙실천을 전하면서 순교했다고 하였는데, 정부측 기록을 보면 신앙이 깊지 않았기에 철저히 배교한 채로 죽음을 당했다. 이어 김상용의 후손인 김백순의 학문연구를 통한 입교, 가족들과 친구의 반대, 문중에서 축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실천과 감옥에서 용감한 증언과 순교, 이어 김진순의 친구로서 성상을 잘 그린 이희영(루가)을 순교자로 보았는데, 정부측 기록을 보면 배교한 채로 죽음을 당했다. 홍필주(필립보)의 주 신부 복사활동과 참수로 인한 순교, 강원숙(골롬바)의 입교과정, 서울에 와서 교회밀사의 비용을 제공하고 여회장으로 임명받아 동정녀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전교활동에 헌신하였고, 교회 일처리에 있어 과단성과 위엄으로 차질 없이 하였



02. 「주교요지」(한글목판본 1885, 절두산순교성지 소장, 사진제공 서울역사박물관) : 정약용의 셋째 형으로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도회 회장을 지낸 정약중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최초의 한글 대중 교리서이다.

“ 정조 말 남인이 친서계와 공서계로 분열,
노론벽파와 남인 시파사이에서 정적 제거를 위해
더욱 격화되었던 박해의 원인과 진행과정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에,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

으며, 6년간 주 신부를 모셨던 사실과 6번의 주퇴형을 받고 참수로 순교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순교자의 이름과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행적과 순교사실은 정확한 은언군의 부인 송 마리아와 며느리 신 마리아, 조용삼(베드로)의 11개월간 옥중생활과 순교 후 기적적인 현상을 전하였다. 이어 이존창의 순교여부와 정산과 예산에서 순교한 이들의 이름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전라도 교회를 간략하게 서술하면서 순교자들이 서울에서만도 300여 명이라고 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지위가 높고 글을 아는 자는 잡아 죽여 없애려고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순교사실은 서울을 떠나기 전인 2월 보름 전까지는 직접 목격한 것이고, 그 이후의 일은 들은 이야기이기에 소홀하고 간략하다고 하였다. 황사영은 순교자 열전 마지막 인물로 주문모 신부를 강조하기 위해 77행부터 개행(改行)하였다. 주문모 신부의 사목활동, 3월 12일 의금부에 자수, 4월 19일 새남터에서 순교할 때 기적적인 현상을 기록하였다. 이어 주 신부의 순교 이후 상심과 실망에 빠진 교회 상황을 서술하면서도 교회지도자로서 신자들을 위로하였다.

교회의 재건과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방안(90~118행)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선교사를 보낸 서양에 재정을 지원해 주길 요청하였다. 재정만 있다면 신부를 영입할 수 있고 교회 재건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둘째 북경교회와 연락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국경통과시 언어가 문제될 수 있기에 북경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조선어를 교육시키는 방안과 책문교역이 활발하기에 책문 안에 신자를 이주시켜 왕래시에 도움을 받자는 것이었다. 이는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고 가장 요긴하고 시급한 일이어서 빨리 이뤄지길 바랐다. 셋째, 교황이 중국 황제에게 선교사를 받아들여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하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는 격이라고 하였다. 넷째, 내복감호책(內服監護策)으로 조선을 실질적으로 내복으로 만들어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자고 하였다. 다섯째, 서양 선박영입방안으로 “서양선박 수백 척(혹은 수십 척)과 군사 5~6만 명(혹은 5~6천명), 대포로 무력시위를 하여 신부를 위시한 신자를 죽인 죄를 묻고 당국과 전교문제를 교섭하자.”는 것이었다. 이 방안이 “교회의 표양에 어긋나지 않을까? 라고 자문하였는데, 불충의 증거도 없이 주 신부와 국가 중신, 신자를 죽이고 박해했는데, 그 죄를 묻는 것은 옳지 않은가?” 라고 하였고, “천주교는 충효와 자애에 가장 힘쓰고 있으므로 온 나라가 봉행하면 실로 왕국에 무한한 복이 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교회의 표양에 어긋나지 않고 인과 정의의 극치로서 뛰어난 표양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황사영은 1795년에 서양선박 영입 요청을 한 경험과 현재함을 통해 동래에 온 서양 선박의 실체를 경험하였는데, 박해라는 상황에 처하자 무력

시위를 요청한 것이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부정하였지만 조정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협박이었고, 이 「백서」를 통해서 천주교인들이 이 방안을 따르는 무리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방안은 북경 주교를 통하여 세계를 대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무참히 죽어가는 신자를 포함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를 뛰어넘을 수 밖에 없다고 보았고, 조선이라는 국가의 틀을 거슬러 백성을 구하려고 한 것이다. 오늘날 인권보장이라는 이념적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당하지만, 방법적 측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다. 윤리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선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으로 거스른 조정에 대한 불가피한 저항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그가 택한 방법이 도덕적 정당성을 얻을 수도 있다. 부도덕한 정권의 폭주에 저항할 권리를 교회는 공동선의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면요청과 맺음말(119~122행)에서는 박해에 살아남은 신자들의 어려운 삶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교회법대로 대·소재를 제대로 지킬 수 없기에 관면을 요청하였다. 이어 1801년 9월 22일 예를 갖추어 올린다고 하면서 「백서」를 마무리하였다.

이 백서의 사료적 가치는 첫째, 순교자들의 행적과 교회 활동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8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된 순교자 124위 중에서 최필공·이중배·원경도·최창현·정약중·최필공·홍교만·홍낙민·최필제·홍필주·강완숙·주문모 신부·조용삼 복자의 입교, 신앙생활, 박해로 인한 갈등과 회개, 순교 등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다. 순교 복자들의 삶과 순교사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자 했던 선각자 황사영의 삶과 고통의 산물인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에 살았던 1801년 2월 보름 전까지 사실들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고, 그 이후의 일은 김한빈과 황심등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면서 추후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둘째, 초기 한국천주교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벽의 부탁으로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 받고 돌아와 활동한 사실, 을사추조적발 사건, 주문모 신부의 명도회 결성, 회장제도 실시, 교리서 편찬 등을 통하여 초기 교회가 발전한 사실이 담겨있다. 셋째, 정조 말 남인이 친서계와 공서계로 분열, 노론벽파와 남인 시파사이에서 정적 제거를 위해 더욱 격화되었던 박해의 원인과 진행과정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에,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IN**

필자 소개

1992년 천주교 원주교구 소속으로 사제수품을 받고, 현재 베른성지 주임신부로 봉직 중이다. 기록학과 역사학에 관심을 두고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2004) 수료하였고, 서강대학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가톨릭교회의 교구기록 관리 방안」(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공저), 「황사영 「백서」연구 - 원본과 이본 비교 검토」(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등이 있다. 2008년 가톨릭신문사 주최, 제12회 「가톨릭 학술상」 연구상과 2011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 유공자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황사영과

「백서」(白書)

필자 소개